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8125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4
8265	하느님을 증명할 수 있는가?.....	5
5706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계시와 진리.....	7
8498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성품을 알린다.....	8
8082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9
1588	사랑의 본질.....	11
8042	하나님의 큰 사랑.....	12
7494	사랑은 생명이다.....	13
7650	사랑의 불로부터 지혜의 빛이 발산 된다.....	14
3140	지혜는 영적인 지식이다.....	16
5592	나는 세상의 빛이고, 빛은 진리이다.....	16
8649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이시다.....	17
3598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세력을 다스린다. 자유의지.....	19
8230	하나님의 영원히 창조하려는 의지.....	20
3609	하나님의 온전함. 그의 의지의 목적.....	21
8767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과 그의 측량할 수 없는 권세.....	22
8080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계시하신다.....	24
7118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25
6150	영원한 법칙인 사랑. 하나님의 질서.....	27
8504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	28
8062	하나님의 공의. 심판. 구속사역.....	29
7547	하나님은 선하고 긍휼이 여기는 심판자이다.....	31
8709	하나님은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다.....	32
4909	"나 자신이 말씀이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	33
3596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말씀이 전달됨.....	35
3398	하나님의 편재. 존재와 힘.....	36
8095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	38
7828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낸 영이다.....	39
8141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41
5215	사랑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	43
2056	삼위 일체.....	44
7648	하나님을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	46
3537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47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B.D. No. 8125

1962년 3월 14일

너희들 창조한 분의 권세는 크다. 그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지혜는 능가할 수 없다. 너희 자신을 그와 연결시켜야 함을 항상 너희가 나에게 귀환하기를 갈망하는 너희가 나에게 귀환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진실로 내 권세와 사랑과 지혜로 역사하는 나에게 너희의 생각을 드러야 함을 너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

만약에 너희 사람들이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온전한 존재로 생각하면,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이런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함을 믿을 수 있으면, 너희는 너희와 나를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떨어져 있게 만든 너희의 내적인 저항을 포기할 것이다.

너희는 올바른 나와 관계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기도할 것이다. 너희는 연약한 어린 아이로서 너희가 위험 가운데 있으면, 내 보호와 내 도움을 구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향한 사랑을 느낄 것이다.

너희는 신뢰하며 너희의 아버지에게 다가오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헌신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를 붙잡기 때문이다. 너희가 더 이상 풀려고 하지 않을 내 사랑의 띠가 너희를 감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내 최고로 온전한 성품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전에 나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나를 벌주는 하나님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신실한 돌봐주는 아버지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나와 올바른 관계에 들어선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자유의지로 나에게 드리게 된다.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의 목적과 목표인 귀환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내 권세와 내 사랑과 내 지혜를 증명한다. 너희가 위험에 처하면 나는 너희를 항상 위험을 벗어나게 인도한다.

왜냐면 나에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항상 내 편에서 주는 선물로 여겨야 하는 즐거움을 너희에게 주면서 나는 너희에게 계속하여 내 사랑의 증거를 준다. 너희는 항상 내 돌봄 안에서 안전하게 느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복종하면, 너희가 긴밀한 생각으로 기도로 사랑을 행함으로 나와 연결을 이루면, 필요한 것을 나는 너희에게 제공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이를 통해 단지 너희의 사랑을 얻기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나와 연합되려는 열망을 깨어나게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면, 너희가 자녀로서 너희 자신을 아버지에게 헌신하고 전적으로 그의 의지와 일치하면, 너희의 이 땅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 자신으로부터 내 사랑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일 것이다.

나는 긴밀하게 연결이 된 가운데 너희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사랑은 항상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너희 심장에 더 이상 어두움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과 지혜와 권세의 하나님으로 깨달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추구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한때 인정하기를 거절했던 나를 다시 인정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너희에게 내 성품에 관한 올바른 설명을 해주기 위한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고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동안 즉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는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나를 깨닫지 못하는 동안 너희가 자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는 너희의 아버지를 내 안에서 볼 수 없는 동안 너희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나 자신을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 안에서 계시한다. 나는 쉬지 않고 너희의 사랑을 얻기를 구한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너희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곁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아멘

하느님을 증명할 수 있는가?

B.D. No. 8265

1962년 9월 6일

너희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절대로 증명할 수 없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강요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유의지로 빛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일은 가능하다. 너희는 단지 생각해보기만 하면 된다.

왜냐면 너희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에게 증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우선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하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나 모든 창조물이 나타내는 능력을 인정해야만 한다.

즉 이 능력을 너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법칙성도 너희가 마찬가지로 부인할 수 없다. 너희들 주변에 있는 창조작품에 부여된 합당한 목적들도 마찬가지로 의지에 의해 인도받는 능력을 증명한다. 이 능력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추론할 수 있다.

이 땅에 너희의 목표는 너희가 이런 생각하는 존재와 연결을 이루는 것이다. 이 연결을 이루지 못하면, 너희가 나를 깨닫는 능력으로 여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한 능력을 부르지 않고 이 능력과 너희를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진리를 헤아려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나는 너희에게 나를 본질적인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한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인간으로써 가진 너희의 생명을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무관심하면 너희에게 진지한 의지가 부족하다.

너희는 절대로 내적인 선명함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너희에게 인간으로써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의식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창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같은 존재로부터 단지 너희들과는 다르게 가장 최고의 온전한 가운데 있는 그러나 자신을 의식하고 생각할 능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 사랑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권세로 역사하는 존재로부터 생성되어 나와야만 한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를 한 능력에 의한 우연한 작품이라고 여길 수 없다.

왜냐면 능력이 내 의지에 의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 능력은 항상 요소적으로 역사하고 그러므로 파괴적으로 그러나 절대로 생성하는 역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의 정해진 목적성과 법칙성이 일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존재를 너희에게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그들이 이 존재를 상상할 수 없고 이 존재에 관한 올바른 개념을 잡을 수 없을지라도 창조가 전능한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고 있다. 사람은 깊은 곳으로 타락해 모든 빛을 빼앗기게 된 결과로써 전적으로 영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나로부터 아직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무한한 가운데 가장 최고로 온전한 영으로 깨닫게 하면, 그의 나에 대한 저항을 할 것이다. 그는 한때 그가 내 사랑의 빛을 거절해 영이 어두워진 것처럼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두움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해야만 한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출처에 대해 선명함을 자신 안에 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는 올바르게 행하기를 자원해야 한다. 그에게 빛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을 가르치게 허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전적으로 어두워진 영은 이런 의지가 없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자신 안에 그가 원하지 않는 죄의식을 불러 일으킬 거라는 감정으로부터 모든 해명을 거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단지 사람들에게 권세가 충만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이 사람 스스로 어떤 것을 체험하려고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항상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르칠 수 없고 이런 사람에게 힘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가 언젠가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지는 그의 의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증거가 없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해야만 한다. 그가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이런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이미 나와 연결을 시키고 진리를 향한 갈망이 그에게 자리를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생각은 이미 인도를 받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섬기게 자신에게 맡겨진 빛의 존재로부터 생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의 저항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 편에서 드리는 중보 기도가 도움이 된다. 이 중보 기도는 항상 그의 의지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줄 것이다.

아멘

나는 너희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받기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우선 나를 믿는 믿음을 요구해야만 하고, 너희는 너희가 전적으로 온전한 가운데 역사하고 사역하는 한 존재의 힘과 권세에서 생성되었고, 너희가 이 한 분의 의지 아래 있다는 내적인 확신을 얻어야만 한다. 이 한 존재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에게 향한다. 왜냐면 너희가 그의 사랑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믿음을 너희에게 요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믿음이 비로소 너희가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너희가 복종하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먼저 맺게 하고 그러면 너희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나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존재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와 밀접하게 연결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불러냈을 때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이 목표는 내가 내 자녀로서 내가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내가 완전히 소유하고, 그를 무한히 축복할 수 있는 온전한 신적인 존재들과 함께 역사하고 창조하는 일이다. 너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깨달을 수 있는 나를 믿는 믿음이 근본 조건이고, 이런 믿음이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길의 첫 걸음이다. 왜냐면 사람이 나를 추구하기 위해 먼저 나를 인정해야만 하고, 나는 내 피조물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야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내가 실제 진실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비로소 나를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은 단지 그들의 기원과 그들의 존재와 존재 목적에 대한 진리를 알려는 소원을 가지면 되기 때문이다. 내가 한 사람 안에 이런 소원을 깨닫는 곳은 강하고 확신 있게 나를 믿기 위한 올바른 발이고, 내가 그 곳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창조물을 통해, 사람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을 통해 나를 계시한다. 나는 생각을 통해 그들에게 나를 계시하고, 모든 형태로 그들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가 원하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믿으면, 내가 비로소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인간으로서 자유의지의 단계에 있고, 모든 강제적인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야만 하고 이로써 너희가 성장하는 일이 위태롭게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유의지로 믿으면, 그러면 그는 자신이 믿는 분의 힘과 권세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나를 인정하면, 그는 높은 곳을 향한 길을 간 것이고, 그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는 끊임없이 높은 곳에서 오는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믿음은 즉 내가 존재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활발하게 이성이 활동하게 만들 수 있다. 왜냐면 나는 인간에게 그가 볼 수 있는 창조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도록 이성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성의 힘으로 그는 이미 자신이 처한, 인간 자신보다 더 강하고, 인간의 의지가 소용이 없는 자신 위의 한 권세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이 권세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 권세를 추구하기 원할 지는 그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고, 이런 의지에 따라 권세가 사람이 자신을 깨닫게 한다. 왜냐면 나는 내 피조물들이 축복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나를 이제 사

랑과 지혜와 권세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갈망하는 아버지로 계시해주기 위해 그들이 나와 연결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성품을 알린다.

B.D. No. 8498

1963년 5월 16일

비록 너희가 나와 내 성품에 대해 영원히 영원까지 근원을 탐구할 수는 없지만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선명한 개념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는 잘못 된 생각에 머무를 필요 없다. 내가 너희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최고로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이를 추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는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로부터 전적으로 온전하게 창조되어 나왔고 다시 그렇게 되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복은 너희가 쉬지 않고 나를 추구하는데 있다.

이 복은 끝이 없다. 왜냐면 나를 추가하는 것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상태에서는 너희에게서 나에게 모든 한계가 사라진다. 너희는 온전함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너희들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면 못할 수록 너희는 나 자신과 내 성품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내 대적자가 이런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대한 잘못 된 개념을 주는 것이 쉽게 된다.

나를 긍휼이 없이 심판하며 사랑이 없고 영원히 저주하는 그 안에 신적이지 못한 성품을 가지지 못한 존재로 묘사한다. 거룩하지 못한 개념으로 즉 내가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 잘못된 것에 대해 영원히 벌을 주고 복수하고자 하는 증독을 가진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나는 사랑 안에서 너희를 돕기 원한다. 너희의 대적자는 너희가 내 사랑을 거절할 수 있게 나를 온전하지 못한 존재로 묘사하려고 한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다시 이런 나에게 대한 잘못 된 개념을 내 대적자의 거짓 역사로 밝혀주고 너희가 내 안에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너희가 너희의 사랑을 줄 만한 온전한 존재로 나를 깨닫게 설명한다. 나는 너희들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왜냐면 너희는 비록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를 거절했을 지라도 내 사랑을 영원히 잃지 않게 될 내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존재는 미워하거나 저주할 수 없다. 그는 항상 단지 자신의 피조물들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돕기 위해 애를 쓴다. 그래서 그들과 영원히 하나가 되길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나 자신에 대해 선명한 개념을 가지게 모든 것을 채우고 있는 내 사랑의 힘이 지혜 안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너희를 창조했다는 개념을 가지게 나를 나타낸다. 내가 모든 존재를 창조할 때에 정해 두었던 목표를 그리고 이 존재들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구원계획을 너희가 알게 한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너희가 진실로 내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왜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진리 안에서 전해지면, 비록 아주 적은 정도라도 빛의 깨달음이 너희에게 비추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의 자신을 나에게 의해 생명이 주어진 내 피조물로 깨닫기 시작한다. 진리가 너희 안의 사랑의 불씨에 불을 붙일 것이다. 너희는 항상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전에 자유의지로 나를 떠남으로 너의 온전한 성품이 전적으로 뒤바뀌어서 온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떠났던 나에게 돌아오는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나와 또다시 하나가 되려면, 온전해야만 한다. 그는 자유의지로 전에 거절했던 내 의지를 따라야만 한다.

사랑과 지혜와 능력 자체인 내 속성을 깨달은 자는 자유의지로 내 의지에 다시 복종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내 속성을 알려 준다. 이는 단지 나와 대화할 때 이를 영접하는 자에게 내 말이 밝은 빛을 선사해줄 것이다. 단지 나만이 순수한 진리를 이 땅에 보내 줄 수 있다.

단지 나만이 빛이다. 나는 이 빛을 너희 심장에 비추려고 한다. 단지 나만이 사랑이다. 이 사랑은 너희가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너희를 빛으로 인도하는 모든 수단과 길을 아는 지혜이다. 만약에 너희 스스로 나에게 어떤 대항도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내 대적자의 손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희의 자유의지다.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깨닫기를 원하면, 너희의 의지가 먼저 나에게 향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진리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내 대적자가 너희가 나에게 오는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너희에게 준 잘못 된 사상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 너희에게 높은 곳으로부터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내 말씀을 이 땅에 보내서 너희가 최고로 온전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영원히 나에게 이끌려는 나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잘못 된 사상으로 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게 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B.D. No. 8082

1962년 1월 19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성되었다. 그 자신이 능력의 근원이다. 그의 근본적인 요소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사랑이다.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판단에 따라 역사하고 창조하는 존재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실행해 옮기는 쉬지 않고 새로운 창조물을 생성되게 하는 무한의 세계로 자신을 사랑의 힘을 발산하는 그러나 항상 그의 목적을 성취시키고 임의대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권세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가 정해지게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동안에는 사랑의 속성에 헤아려 볼 수 없는 동안에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인정하는 최고이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의 특성으로써 사랑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 땅에 과정을 가는 동안에는 이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이해할 수 없게 남을 것이다. 너희 모두는 이런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너희는 능력이 발산되어 나온 것이다.

너희의 원래 성품 자체도 사랑이다. 그러나 존재의 속성을 증명해 주는 생각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창조 된 것은 그리고 창조될 것은 어떤 것도 계획이 없이 생성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지혜가 충만하게 생각이 되었고 모든 것이 너희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최고로 온전한 존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 존재는 번성한다. 자신으로부터 같은 존재를 생성시킨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흘러나와서 그들에게 형체를 부여한다. 창조가 된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그의 원래의 성품이 사랑이고 사랑으로 남는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역사해야 할 능력이고 능력으로 남게 된다. 이 능력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방해를 받으면,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사랑의 원칙이 반대로 바뀌게 된 것이다. 자기 자신이 사랑과 지혜와 능력인 즉 하나님이신 존재에게 저항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저항은 실제 생명으로 창조된 존재 편에서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형상으로써 자유의지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는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을 벗어 나게 된다. 자기 자신이 반대로 된다. 그는 실제 존재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힘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굳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발산되어 나온 자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들 자신의 원래의 성분이 사랑이다. 그러나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존재로 발산되어 나오게 한 분에게 저항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랑 자체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사랑은 동시에 빛이기 때문이다. 이 빛은 사람들의 사랑이 연약한 동안에는 아주 적게 사람들에게 비추어 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을 수 없다. 단지 그에게 전해지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해진 것이 진리에 합당하면, 그들에게 빛을 준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성품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는 넘치게 온전한 존재에게 이제 그가 영원한 사랑으로 깨닫기를 시작한 존재에게 향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로 헤아려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영원한 능력의 중심이고 모든 창조된 존재들은 발산되어 나온 능력의 불씨로써 그의 아주 작은 속성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원래의 불을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들의 의지가 선하고 그들이 생성되어 나온 존재의 사랑의 빛에 자신의 심장을 다시 열면,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이런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자신을 자신의 비전을 그들에게 계시하기 때문이다.

그가 창조한 존재들에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 자기 자신에 관해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자기 자신이 사랑인 존재의 최고로 큰 사랑의 증거이다. 이를 통해 다시 사랑이 원래의 요소에 합당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피조물들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정해진 바대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원한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해 그는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하기를 원한다.

아멘

□ 든 영적인 존재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은 삶의 감정에서 나타나는 힘이고, 이 힘이 강하고, 깊은 정도에 따라 행복하게 해준다. 사랑은 사랑이 정한 대상과 연결되기를 구하고, 자신에게 이끌어 들이기를 원하는 감정이다. 왜냐하면 연합되는 일이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연합이 되는 것보다 더 긴밀한 연결은 없다.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 사랑은 마지막 성취이고, 모든 축복의 본질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중단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는 존재들을 모으고, 그들을 말할 수 없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 중단되지 않고 우주로 흘러 나가는 흐름이다.

사랑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사랑은 단지 사랑이 원하는 어떠한 대상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선택하면 이 사랑은 악을 향한,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와 하나가 되기를 구하는 잘못된 사랑이다. 나타나는 감정은 똑 같은 감정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대상은 다른 반대의 극을 향한 것이다. 한쪽으로 향하는 일은 항상 다른 쪽을 떠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 안에 근원을 둔 감정이고, 우주로 전파되고, 이제 다시 자신의 창조주와 연합이 되기를 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반대 극과 연합이 되기를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정반대의 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발산되어 나왔고, 다스리고, 권세있게 되기 위해 사랑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세를 향한 모든 사랑은 그의 권세를 증가시킨다. 사랑을 사랑의 출처로 다시 반사해주는 모든 일은 대적자의 능력을 적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은 증가시킨다. 사랑으로 서로 연결된 모든 것은 쉬지 않고 사랑의 출처를 향해 흘러간다. 사랑은 어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혼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의 출처도 영적인 존재여야만 하고, 어떠한 헤아려 볼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하고, 육체의 감각으로는 의식할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혼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세상 재물과 연결시키면서, 다시 말해 사랑을 어두움의 나라에 속한 물질과 연결시키면서, 세상의 것을 위해 소모한다면, 이와 동시에 사랑이 어두움의 권세자와 연결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신의 출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대적자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고, 이런 사랑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와 연결되려고 한다.

이러한 잘못된 사랑은 소유하려는 사랑이고, 이 땅의 행복을 위한 사랑이고, 이 땅의 삶을 위한 사랑이고, 모든 물질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인도한다. 사랑이 갈망하던 존재와 연합은 사랑으로 양분을 공급하던 존재에게 단지 거짓 행복을 의미하는 감정을,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온전하지 못한 행복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반면에 영적인 존재에게 향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이미 얻을 수 있고, 언젠가 저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을 준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 사랑 자체인 하나님께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선물하게 하라. 왜냐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아주 크고 나는 항상 단지 베풀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열려진 심장 외에는 즉 나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받으려는 의지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넘치게 선물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선물할 것이다. 너희의 육체와 영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져서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표와 목적대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와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내 은혜를 충만하게 너희에게 부어 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연약해 도움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도움이 없이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높은 곳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말할 수 없이 축복된 온전한 존재가 되길 원한다. 너희는 내 일 부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의 나에게 자유의지로 너의 심장을 열고 나 자신이 너희를 소유하기를 갈망하지 않는 한 너희는 아직 나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런 의지와 갈망이 너희 안에서 살아나야만 한다. 이를 위해 너희는 힘과 은혜가 필요하다. 왜냐면 너희는 아직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통해 의식적으로 나와 연결이 되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는 아직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항상 너희가 내 사랑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너희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노력을 한다. 나는 너희에게 계속하여 사랑의 선물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제공자에게 향하게 하게 했다. 왜냐면 그럴 때 비로소 이런 사랑의 선물이 너희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단지 너희의 내 사랑을 느끼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너희 심장을 여는 것이 내 사랑의 비추임을 받으려는 자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 너희의 스스로 그로부터 창조 되어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희는 나에게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의지가 이미 나에게 향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너희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 나는 너희에게 내 말을 가까이 준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분과 연결이 되려는 갈망이 불타오르게 한다.

나는 너희에게 생각으로 설명하거나 너희에게 진리에 합당한 기록 된 문서를 전해주거나 또는 내가 너희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 나는 모든 각 사람을 영접하고 그래서 사랑이 응답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영원한 사랑인 나와 하나가 되길 추구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심장에 사랑을 비추어 주기 원한다. 왜냐면 나는 나 자신을 항상 선물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창조물인 너희를 계속하여 행복하게 해주기 원한다. 왜냐면 내가 계속하여 너희가 응답하는 사랑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응답하는 사랑은 다시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 사랑이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음을 너희

가 나로부터 아직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사랑이 너희를 뒤 따르다는 것을 너희는 확신할 수 있다.

내가 너희의 사랑을 얻기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응답을 받는 사랑이 비로소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는 내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너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나에게 돌아오게 요구하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계속하여 너의 심장에 접촉을 할 것이다.

너희가 아직 너희 자신을 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내 사랑의 힘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복종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축복된 주는 일과 받는 일이 끝이 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원래의 성분이 사랑이고 너희들도 다시 너희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계속하여 내 사랑으로 너희가 나에게 속하게 되고 영원히 속해 남을 때까지 뒤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은 생명이다.

B.D. No. 7494

1960년 1월 4일

너희는 사랑 안에서 단지 진실 된 생명을 찾을 것이다. 사랑은 너희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것이다. 사랑은 너희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그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영원으로부터 사랑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선 사람은 생명 가운데 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 안에 내 원래의 성품이 거해야만 한다. 사랑이 너희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면, 너희는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그의 사랑없음으로 인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자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명은 내 능력을 계속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생명은 내 능력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내 뜻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이로써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 머물 수 없다. 왜냐면 그는 자신에게 충만한 능력을 내 뜻대로 사랑과 생명은 나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그의 뜻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이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가 사랑을 통해 나와 하나가 되고 축복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는 상태인 생명을 증명해주는 능력을 나로부터 계속하여 받으면, 이런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자신의 혼이 전적인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비록 그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능력하게 보이고 세상 일을 더 이상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의 혼은 더 이상 묶임을 받지 않았고 그의 자유 가운데 진실 된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효과 보다는 영적 효과를 줄 역사를 행하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가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이 땅의 삶이 매일 낮아 질 수 있는 육신의 삶의 정도만을 단지 높이면, 이 땅의 삶은 죽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 죽음의 상태가 육체와 혼에 임하면, 생명을 영원히 잃는다. 혼의 생명을 위해 돌보아야 한다. 이는 단지 혼에게 능력을 주는 영원히 지속되는 올바른 생명을 너희에게 주는 사랑의 삶을 통해 일어 날 수 있다.

사랑만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한다. 너희 혼은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 생명의 상태에 거하게 된 것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생명의 상태에서 혼은 이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 일한다. 왜냐면 너희에게 항상 흘러 들어가는 능력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의 내 뜻대로 일하고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 일은 아직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러므로 무기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혼들의 구속을 돕는 일이 될 것이다. 비록 육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혼은 이런 일을 행한다. 왜냐면 혼은 육체와 관계없이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통해 한번 생명에 도달한 혼은 이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사랑만이 진정한 생명이 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사랑이 없는 동안에 너희는 생명의 상태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사랑이 없는 동안에 너희는 영의 나라를 위해 역사하고 창조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나라를 위해 일하면, 너희에게 사랑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단지 능력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항상 더욱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너희는 항상 단지 사랑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아직 진정한 생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 가운데 있는 혼들을 위해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한다.

너희가 이런 혼들에게 행하는 일은 너희 자신이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이다. 이런 모든 일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생명은 계속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원한 죽음을 벗어나게 한 일이 너희와 너희의 생명을 증거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와 연합을 통해 이미 생명은 찾지 못했으면, 내가 너희 안으로 계속하여 부여주는 능력의 흐름이 없었다면, 너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게 되고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는 내 뜻대로 일할 것이다. 이 가운데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축복되고 영의 나라에서 축복될 것이다.

아멘

사랑의 불로부터 지혜의 빛이 발산 된다.

B.D. No. 7650

1960년 7월 18일

사라만인 지혜에 도달하는 열쇠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그 자신이 진리 밖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라도 만약에 그에게 진리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있으면, 사랑이 주는 효과를 알면, 그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랑은 빛 자체이다. 사랑을 자원하여 행하려는 심장은 내면의 빛의 비추임을 받는다. 왜냐면 사랑은 영원한 아버지의 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그 안에 가지고 있고 이 모

든 지혜를 이제 내면으로부터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불이 지혜의 빛을 발산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사람의 심장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진리에 합당한 지식이 즉 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깊은 진리를 이해하길 원하면, 얼마나 좋은가. 왜냐면 단지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깊고도 깊은 지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이웃들의 지식을 훨씬 능가하는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거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진리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원래의 상태에서는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전적인 깨달음 가운데 있었고 그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깨달음이 버려져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고 이제 사랑의 삶을 통해 자신 안의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면, 언제든지 전적인 깨달음이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오류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질문에 관련 된 논쟁하는 질문이 있으면, 그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내용이 진리인지 판단하는 일에 관한 것이라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영을 깨어나게 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이 깨어난 사람들에 속한다고 여길 것이다.

그는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의 내용을 진리로 대변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르면, 이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될 수 없다. 사람들 스스로 이웃들의 사랑의 정도를 측량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진리 자신인 하나님 자신에게 다가가 그에게 설명을 구하는 한가지 길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자도 사랑이라는 구호 아래 자신을 가장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 줘야만 한다.

그러면 이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고 대부분의 이웃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지혜라고 말할 수 없고 사랑의 불로부터 나오는 빛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시험해보고 너희가 영접하기 어렵게 생각되는 가르침에 의해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내적으로 경고받을 것이다. 왜냐면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오류에 빠질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가끔 영적인 내용이 제공되면, 그는 방어하기 위한 올바른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대적자가 개입할 수 있는 곳에서 개입하면, 그는 이를 깨달을 것이다. 그는 단지 더욱 긴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에게 오류로부터 보호를 구하고 올바른 깨달음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생각은 올바르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판단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혜는 진리에 전적으로 합당한 영적인 지식이다. 지혜는 지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지식이고, 사람들을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한다. 왜냐하면 지혜는 반박하는 어떤 지식에도 견디고, 어떤 것도 지혜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신적인 근원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단지 하나님 자신이 온전한 것을, 그러므로 부족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온전하다는 권리를 가진 지식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지식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고, 논쟁의 대상으로 머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지식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지식이 될 수 없고, 이 지식은 이 지식을 이성을 통해 얻은 사람이 변화됨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서 연구를 마치면,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지식이 올바른 지식인지, 진리에 합당한 것인지는 증명되지 않았다. 세상 편에서 세상 지식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 지식은 근거가 없는 것 아니고, 사람에게 알고 있다고 믿을 권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이 지식은 지혜가 아니다.

세상 지식은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인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또는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을 절대로 전해주지 않는, 알고 있는 세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전해준 진리가 지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지식이 더 이상 갈망할 만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향한 갈망을 항상 높여 주기 때문이다. 지혜는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지혜를 버릴 수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 이 지혜를 대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지식이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지식이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 지식의 성공이 다시 단지 세상 재물과 영광과 부유함을 준다는 것을 아는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 마지막 목표인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되어, 빛의 존재로서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자체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혜는 사람을 일깨워 주고,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수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 이 지혜는 그가 다시 영적인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고,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알려줄 수 있게 한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모든 존재들을 다시 지혜 자체인 하나님께 인도한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고, 빛은 진리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는 곳에 단지 빛을 비출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다. 이 말을 심장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사람은 곧 빛의 광선을 받게 될

것이고, 그는 빛에 도달하기 위해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빛은 진리이고, 진리는 나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 빛을 밝혀주도록 자신 안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영접하는 일은 사랑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그 안에서 산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나 없이는 어둠 속에 빠져 살고, 너희가 다른 곳에서 빛을 찾을지라도, 너희가 스스로 사랑을 통해 불을 밝히지 않고,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자체가 사랑인 나를 너희에게 이끌지 않으면, 너희는 사랑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의 생각이 무질서 하게 될 수 있고, 너희 심장의 내면도 무질서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너희 안에 사랑이 거할 수 없게 된다. 사랑은 영원한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한 너희의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너희 안에 어떤 선명하지 못함과 질문이나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심장 안으로 영접을 받을 때 너희 안에 빛이 있게 된다. 왜냐면 나 자신이 영원의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빛이나 어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너희가 빛이 세상에 임하게 한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너희는 나를 얻으려고 시도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통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불러내게 할 것이고, 너희는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내 사랑의 계명을 내 뜻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내 뜻을 따르게 될 것이고, 나와 내 사랑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삶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발산하는 빛 안으로 스스로 들어갈 것이고, 빛을 구할 것이고,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살게 되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랑을 통하는 길 외에는 진리에 도달하는 다른 길이 없다. 이런 사실이 또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랑이 없는 곳에 틀림 없이 있어야만 하는 오류를 너희에게 설명해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사랑은 식었고, 나 자신이 거할 수 없는 곳인 내 밖에서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의 사랑 없음 자체로 인해 물리침을 받은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사람의 이성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되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영원한 사랑이다. 그러나 빛이 꺼진 곳에 사랑이 없고, 영의 어둠이 있고, 오류와 무지와 속는 일과 영적인 오만함이 있다. 왜냐면 그런 곳을 어둠의 권세자가 다스리기 때문이다. 어둠의 권세자는 빛을 물리치기를 원하고 이로써 또한 영원한 진리이고 영원한 빛인 분을 물리치기 원한다.

아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이시다.

B.D. No. 8649

1963년 10월 19일

영 원으로부터 단지 유일한 능력의 근원인 나로부터 능력이 무한을 향해 흘러 나간다. 어떤 존재도 나로부터 온 능력을 제공받지 않는 한 자신의 권세 아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다. 어떤 존재도 나를 무력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면 모든 존재는 내 의지에 의해 나 자신 밖으로 세운 내 능력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비록 아주 온전하게 창조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자유의지로 최고의 온전함에 도달해 내 자녀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능력의 근원인 나 자신을 능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내 의지를 실행하는 나 자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항상 나에게는 이렇게 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영원히 하늘과 땅의 주관자로 우주와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의 주관자로 남을 것이다. 비록 어두움의 권세인 지옥 일지라도 내 의지와 내 능력에 복종해야만 할 것이고 나를 절대로 무력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어두움의 권세자도 한때 내 능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내 능력을 전적으로 거두어 드렸다면 그는 이미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는 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내 능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멸돼야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내 능력이 나에 의해 창조 된 것이 영적인 창조물이든 세상적인 창조물이던 간에 모든 것이 유지되게 보장해주고 있다.

왜냐면 세상적인 창조물들도 내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겉모양은 쇠할지라도 그러나 이를 형성하고 있는 영적인 능력은 남는다. 왜냐면 모든 물질은 형태로 굳어진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다. 나는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능력은 절대로 소모되지 않을 것이며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비록 영원한 힘의 원천인 나 자신으로부터 계속하여 능력이 흘러 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창조물들을 유지하고 존재하게 할지라도 내 능력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게 될 것이다.

내 능력은 계속하여 새로운 창조물들을 생성시킬 것이다. 타락했던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들의 수는 끝이 없이 많다. 이런 깊게 타락한 존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데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구원시대와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종류의 창조물을 필요하다. 이것들은 다시 항상 나로부터 능력이 흘러 나가는 것을 요구하는 일들이다. 그러나 모든 창조하는 일은 나에게서 축복에 속한 일이다. 다시 온전한 상태 도달해 그들 스스로 자유의지로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게 된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의 축복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모든 존재들이 이제 나로부터 능력을 받고 있고 이는 그들의 축복이며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능력을 올바른 의지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축복은 증가할 것이다.

내 능력이 존재들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일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영원한 질서 안에 있는 내 끝없는 사랑과 지혜가 창조하는 일을 할 것이다. 온전한 존재들은 항상 이 질서 안에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영원한 질서를 벗어난, 내 대적자가 그에게 흘러가는 능력을 잘못 인도해 무질서한 상태를 만들려고 할지라도 그는 항상 단지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대적자가 전에 나로부터 흘러 들어가는 능력을 잘못 사용하게 시도한 대로 타락했던 영적인 것을 담고 있는 단지 그의 부정적인 역사를 무력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진 새로운 창조물들을 계속하여 생성하는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잘못 사용되는 능력이

이제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대적해 역사할 수 없게 되었고 내 대적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강제 가운데 섬기는 일을 하게 자극을 받아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일을 하게 되었다. 나로부터 나온 모든 능력은 최종적으로 능력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 법칙이 모든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장한다. 내 대적자 자신도 언젠가는 다시 나를 향한 길을 택할 것이다.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던, 더 이상 영원한 질서에 합당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았던 능력이 다시 그들의 출발지로 돌아오게 된다.

왜냐면 비록 저항하는 능력의 화신인 내 대적자를 상극으로 여길 수 있을지라도 그의 능력은 내 것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영원한 능력의 근원인 나 자신으로부터 한때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단지 피조물로서 배출시킨 능력인 모든 창조된 존재들에게 그들의 의지에 따라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의지가 반대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허용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대적해 역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나만이 주인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나로부터 온전하게 생성되어 나왔을지라도 이들은 내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나를 대적하는 싸움은 성공하지 못하고 단지 나를 대적해 싸우는 자 자신을 연약하게 하기 만한다. 그러나 이는 나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새롭게 역사하고 창조하게 만든다. 왜냐면 내 능력은 쉬지 않고 항상 행복하게 해주려는 방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에게 계속하여 주어지는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가운데 축복을 찾을 수 있게 조성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세력을 다스린다. 자유의지.

B.D. No. 3598

1945년 11월 9일

 든 세력은 나에게 순종해야만 한다. 왜냐면 나의 의지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지하의 세계도 다스리기 때문이다. 단지 자유의지로 나를 또는 나의 대적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단지 한 곳에서 나는 나의 의지를 뒤로 물러서게 한다. 이로써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는 큰 불의를 설명할 수 있고, 영의 세력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 사람의 자유의지가 선하게 또는 악하게 만들 수 있는 일도 설명할 수 있다. 왜냐면 이 땅에서 사람은 자신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시험에 합격이 그를 자유롭게 강한 존재로 만든다. 그럴지라도 나의 의지는 모든 역사 위에 있다.

시험도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축복을 위해 허용이 된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이 땅에서, 또는 영계에서 악한 의지로 행한 일을 좋다고 하지 않는다. 흑암의 세력이 이 땅의 사람의 생각을 혼돈케 하고 악한 행동을 유발시켜,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죄를 짓게 하면, 흑암의 세력은 사람들을 항상 더 큰 죄 안으로 항상 더 큰 흑암에 빠지게 한다. 이런 일이 나의 허용으로 일어났고, 사람의 의지의 변화에 도움을 주었을지라도, 악한 일은 악한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일은 이 땅에서나, 영계에서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고난과 환란이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왜냐면 고난과 환란은 사랑 없음의 결과이고, 사랑 없음은 나의 영원한 질서에 위배되고, 사람들에게 전혀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 무질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위험과 고난이 있는 곳에 사랑 없음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무질서가 있다. 이 곳에는 흑암의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한다. 왜냐면 그들이 씨앗을 심기위한 좋은 밭을 찾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움과 시기심을 뿌려, 더 큰 무질서를 만들어 간다. 이런 일이 전혀 나의 뜻이 아닐지라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막지 않기 위해, 나는 이런 일을 허용한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으면, 그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에게 그의 의지가 잘못된 것을 선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모든 강력한 악한 생각의 결과를 허용한다. 이로써 그가 깨달아, 자신의 의지를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왜냐면 의지의 변화가 이 땅의 사람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내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고, 자유의지를 주었다. 마찬가지로 나는 영의 세력들에게 그들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역사하게 한다. 그러나 나의 의지가 모든 것 위에 있고, 나의 의지가 모든 지혜와 사랑으로 무한한 세계의 모든 존재를 다스린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히 창조하려는 의지.

B.D. No. 8230

1962년 8월 1일

내 사랑에 제한이 없음을 이 사랑은 쉬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함을 이 사랑 자체가 능력이 되고 이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라. 내 모든 생각이 세상적인 창조물이든지 또는 영적인 창조물이든지 간에 형체가 되었다. 내 사랑은 중단되지 않고 내 사랑의 힘에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창조의 과정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한때 나를 떠났던, 그래서 전적으로 굳어진 상태에서 내가 성장 과정의 길을 시작하는 물질이 되게 하기 전에 아직도 끝 없이 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영적인 존재들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물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모든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은 피할 수 없이 언젠가 창조물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왜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귀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타락하는데도 영원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다시 귀환하는 데에도 끝없는 시간이 요구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기 위해 계속하여 새로운 창조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고 내 지혜와 사랑이 모든 종류의 창조물을 통과하는 끝 없이 긴 과정이 성공할 가능성을 깨닫는다. 내 창조하려는 의지는 항상 새롭게 자극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이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영원한 법칙에 따라 항상 일하는 능력을 무한한 가운데로 비추어 준다. 나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하고 모든 영원에까지 존재할 것이다. 내 사랑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창조하려는 의지는 쉬지 않고 역사를 할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나타내기를 원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일은 계속하여 창조하고 창조한 것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법칙의 아래 있고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그의 생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상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제한이 없고 나에게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없고 나에게서는 천 년이 하루와 같다. 이런 설명도 단지 비유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시간과 공간의 법칙의 제한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영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너희에게 설명 해주기 원한다.

끝 없이 넓은 바다에 셀 수 없이 많은 물방울들을 담겨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런 비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 성품과 내 역사와 내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영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존재하고 너희는 나 자신을 내 사랑과 지혜와 능력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 주변의 내 작품인 창조물들이 나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너희들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나에 대해 계시해줄 것이다. 너희가 아주 많이 나에 관해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성으로는 나를 헤아려 볼 수 없고 내 역사하고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심장 안에 사랑이 불타오른다 되면, 너희의 원래의 요소가 깨어나게 된다. 그럴 때 비로소 너희는 비록 너희가 절대로 나 자신과 내 성품의 모든 깊이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역사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것이다.

내 사랑의 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창조하려는 의지는 지치지 않고 역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나라는 내 손에 의해 온전하게 생성된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온전함 가운데 머물거나 또는 끝 없이 긴 창조물의 과정을 거친 후에 내 자녀로서 나에게 귀환하는 존재들이 창조적으로 일하는 생명력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존재들은 영원하고 제한이 없는 제한이 없이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창조하고 역사하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생각과 같은 의지가운데 역사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함. 그의 의지의 목적.

B.D. No. 3609

1945년 11월 18일

하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의 존재가 가장 깊은 지혜를 발산하고, 그의 총명한 힘을 꺾을 수 없고, 그의 의지는 단지 온전한 것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그의 영원한 창조의 힘에서 나온 모든 존재는 그의 탁월한 지혜로 섬겨야 하는 목적을 위해 선하고 올바른 것으로 깨달은 존재이고, 온전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절대로 결함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의 능력도 제한이 있고, 그의 사랑이 무한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롭게, 그의 지혜는 의지와 짝을 이루어 그의 힘을 통해 그의 모든 생각이 형체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는 그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그의 지혜가 목적에 전적으로 합당하게 여기는 것만을 원한다. 이 목적은 한때 그의 힘으로부터 온전한 상태로 생성되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온전하지 못하게 된 존재들의 무한한 행복이다. 그의 의지는 절대로 반대 방향으로 역사하지 않고, 비록 그가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그가 실제 존중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정적이지 않은 동안에

는, 그의 힘을 통해 이런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또는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선하고, 단지 온전한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게 된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큰 저항을 한다. 왜냐면 존재가 가장 온전한 존재를, 그 자체가 사랑이고 지혜이고 힘인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해야만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의 의지에 그가 무지하게 된 책임이 있다. 원래 온전했던 존재가 자유의지로 모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자신에게서 빼앗았고, 무지한 상태에 빠지게 했고, 단지 자유의지가 이런 무지한 상태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높은 존재의 힘과 권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의 사랑과 지혜에 대해 알지 못하고, 행복한 온전한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을 깨닫지 못한다. 이로써 하나님이 그들 돕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크게 위험한 상태에 있게 된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온전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때 자유의지로 자신을 떠나 타락한 존재를 도와, 그가 다시 온전하게 되게 하고, 그를 축복되게 하기 위해 그가 자신을 다시 찾도록 돕는 수단이다. 그가 그의 의지와 사랑과 지혜로 행하는 일은, 온전하지 못한 자의 의지가 저항한다면, 비록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끝없이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필연적으로 목표에 도달한다. 저항이 약해질 때, 비로소 존재가 자신이 온전하지 못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최고로 완전한 존재가 영원한 창조주이고, 자신이 이런 가장 높은 존재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이런 작은 깨달음으로 그의 성장이 시작된다.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최고로 온전한 존재를 닮기 시작하고,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시작한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을 지혜롭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를 둔 일임을 깨닫는다. 그가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그는 영원히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빠질 수 없고, 영원히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그가 끊임없이 높은 곳을 추구하는 일을 통해, 자신을 한때 생성되게 한 원래의 힘과 하나로 융합이 되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말할 수 없게 축복되기 때문이다.

아멘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과 그의 측량할 수 없는 권세

B.D. No. 8767

1964년 3월 1일

너희가 너희 눈이 볼 수 있는 우주를 바라볼지라도 너희는 단지 내 창조물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볼 수 있다. 이 무한한 세계에는 내 창조물들로 채워져 있다. 이를 통해 너희는 이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창조물들은 먼저 자신이 형체를 입은 영적인 것 들로써 더 성숙함에 도달해야 할 좀 더 성장한 영적인 존재들을 자신 안에 담고 있다. 영적인 존재들은 한때 타락을 했던 원래의 영들로 된 영적인 존재들으로써 자신이 속했던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 창조물 안에 묶여 있다.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영원이라고 부르는 끝 없이 긴 시간이 모든 타락한 자들을 영화 시키기 위해 굳은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다시 원래 초기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미루어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신성을 다르게 마음에 그리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크기와 권세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한한 가운데 역사하는 내 사역에 관한 것이든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은 제한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에게 내려가서 그들과 대화한다는 것이 너희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보일 것이다. 너희는 또는 인간으로써 내 성품을 마음에 그려볼 수 없다.

내 모든 성품들은 너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의 의지와 권세로 다스리는 무한한 것이 그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한 형체 안에 넣을 수가 없다. 왜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가장 큰 비밀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온전한 정도에 너희가 도달하기 전에는 너희의 생각은 제한이 있어 제한이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주 안에 있는 창조물들은 영원에 영원까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모두가 영화 될 때까지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흐르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에게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무한한 것을 다스린다. 나에게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속적인 창조하는 가운데 내 능력을 비추어 주는 데서 내 행복을 찾고 있다.

나는 어떤 것도 내 사랑과 지혜가 역사하지 않고서 창조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단지 너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모든 설명을 해줄 수 없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가 볼 수 있는 범위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관한 설명은 너희가 완성이 되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 자신이 영의 나라에서 높은 빛의 정도에 도달하면, 비로소 너희는 너희가 전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창한 세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창한 세계들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것에 속한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볼 수 있게 될 창조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정해진 목적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최고로 크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이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영원히 도달할 수 없게 남는다. 왜냐면 피조물로서 존재들은 내 근원적인 권세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각각의 피조물들을 넘치게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모든 기쁨과 영광을 영의 나라에 준비하는 너희의 가장 사랑이 많은 아버지이다.

그러나 내가 최고로 온전하기 때문에 피조물인 존재들도 나와 긴밀히 연결 된 가운데 축복 될 수 있기 위해 온전한 정도에 도달해야만 한다. 이런 연결은 너희들 성품을 너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왜냐면 내 사랑이 자립적인 존재로 발출 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들의 근원적인 성분은 마찬가지로 나로부터 발산 된 사랑의 힘이다. 자유의지가운데 타락한 존재들이 다시 사랑으로 변화돼야만 한다. 그러면 내가 모든 내 자녀들에게 준비한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때 나를 떠나 타락했던 모든 존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그들이 더 이상 저항을 하지 않을 때까지 자신을 나에게 그리고 내 사랑에 전적을 복종시킬 때까지 내 사랑으로 그들을 동행하는 데에 내 행복이 있다.

무한한 가운데 있는 모든 내 창조물들은 이 마지막 목표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모든 별들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자들은 그들의 특별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피조물들이 마지막 성장에 도달하게 돕고 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이 자기를 의식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과 언젠가는 하나가 되기 위해 그를 자유의지로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최고의 축복을 보장받는다. 한때 타락했던 원래 영이었던 너희를 위해 만들어진 즉 단지 너희가 한때 너희를 모든 온전함 가운데 창조했던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너희를 향한 내 끝없는 사랑이 창조하게 만든 끝없는 창조의 세계 안을 적게라도 바라볼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해 나는 너희 인간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준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측량할 수 있는 사랑이 나로 하여금 창조를 하게 만들었는지에 관한 그리고 내가 최고로 높은 곳에서 내 피조물인 너희에게 내려오는 것에 관한 작은 빛을 나는 단지 너희에게 비추어 주려고 한다. 이는 나 스스로 너희들과 대화하기 위해 너희의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 성품을 너희에게 밝혀주는 것이다.

이는 내가 항상 너희에게 항상 영원히 해당되고 언젠가는 전해지게 될 내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사랑에 자유의지로 응답하고 이제 너희의 원래의 존재로 변화되는 일을 완성한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모든 창조물들을 파악해 볼 수 있게 되고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나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는 자들에게 준비한 영광들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계시하신다.

B.D. No. 8080

1962년 1월 15일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가는 길을 종말 전에 너희가 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모든 것에 관해 나는 너희에게 설명해주시길 원한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원인을 모르고 있다. 너희는 이에 관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 왜냐면 그럴 때 너희가 비로소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 이 땅에 거하는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너희에게 자세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은 너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너희는 먼저 진리에 합당하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스스로 이에 대해 생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너희의 삶을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진리를 전해주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너희의 자유의지가 너희가 이를 영접하고 진리로 깨달을지 결정적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이제 종말 직전에 서 있다. 너희가 종말까지 너희 혼의 성숙에 도달하기를 원하면, 너희는 이를 진지하게 여겨야만 하고 의식적으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시켜야만 한다.

너희는 먼저 그를 믿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이 세상 밖에 있는 "권세"를 증명해주는 많은 것들을 앞으로 체험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정할 수 없는 너희의 운명을 정하는 너희가 복종해야만 하는 한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면, 너희가 이미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이 권세와 연결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의해 붙잡힘을 받고 진실로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것으로 인도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왜 내가 자주 나 자신을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계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자연에서 재해가 일어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나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이 소용이 없음을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되어야만 한다. 이런 일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 위의 권세를 깨달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 아직 나에게 전적으로 저항하는 생각 가운데 있으면, 일어난 일에 다른 이유를 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모든 종류의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계시한다. 그러나 항상 몇몇 사람들은 이를 통해 대화 요청을 받는 것으로 느낄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존재하고 그들 자신이 나로부터 창조되는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종말의 때까지 단지 짧은 시간 만이 남아 있다. 이런 종류의 계시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강박해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아주 어려운 운명적인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은 무능력하고 자신이 자신을 창조한 분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는 아직 몇몇의 혼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항상 또 다시 낮은 음성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크고 강력하게 말을 할 것이다. 나와 이 땅과의 연결은 항상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 사람들은 내가 다시 얻기를 원하는 내 사랑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자연의 원소를 통해 나타나는 음성은 추수가 이루어 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등을 돌린 모든 것이 다시 죽음에 빠지게 되고 새 땅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더 크게 올리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B.D. No. 7118

1958년 5월 12일

나에게 진실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 역사는 너희 사람들에 의해 아주 자주 제한을 받는다. 이 제한은 너희 자신을 위해 내가 침범하지 않는 제한이다. 단지 나 자신이 이를 수 있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증명해주었을 역사를 통해 내 권세와 강함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명했으면, 그에게 축복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영원히 더 이상 자유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별한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단지 언젠가 그가 온전함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강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도 내가 아주 자주 기적의 역사를 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믿음이 강하지 않다. 믿는 사람도 그의 생각에 아주 제한이 가해져 있다.

그는 아직 제한이 없는 영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는 항상 세상적인 제한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그가 모든 장애물을 넘기 위해 단지 작은 발걸음만 옮기기만 하면 된다 할지라도 이런 동안에 나는 그의 믿음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가 제한이 없는 역사를 허용하는 이런 강한 믿음에 도달하게 자원하여 너희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

왜냐면 나는 너희의 사랑을 높이기 위해 내 모든 사랑과 권세를 너희 모두에게 증명해 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 자유롭게 만들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한다. 너희는 항상 내 권세에 제한이 없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염두를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의심하는 것은 내 권세보다도 내 사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내 사랑의 자녀임을 알아야 하고 내 사랑이 끝이 없음을 알아야 하고 이 사랑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이 사랑은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함을 알아야 하고 너희가 이 사랑을 단지 요구하기만 하면 됨을 알아야 하고 단지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너희 심장을 열고 내 사랑이 이제 너희 안에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내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내 사랑은 너희의 발걸음 마다 뒤를 따르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 준비되어 있다. 사랑은 항상 자신을 선물하고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유일하게 너희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이미 증명 된다.

왜냐면 내 사랑이 모든 뜨거움으로 너희를 붙잡지 않으면, 너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거한다는 것이 너희에게 내 사랑의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이 너희를 짓누르면, 너희는 이제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 내 사랑을 의식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 심장은 내 임재를 느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내 도움을 기다릴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내 사랑에 합당하지 더 이상 의심하거나 또는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올바른 아버지의 사랑이 사라질 수 없음을 이 사랑이 자녀들을 돌본다는 것을 그리고 자녀들이 갈망하는 것을 자원하여 베풀어 준다는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이런 내 말을 너희 심장에 깊이 새겨야 한다. 너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항상 또 다시 너희가 흔들리게 되면, 이 말씀을 근거로 일어서야 한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특별하게 역사할지 역사하지 못할지는 유일하게 너희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면 모든 세상을 창조한 분이 자신의 피조물들의 위험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너희의 모든 위험을 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너희의 믿음에 합당하게 너희에게 베풀어 줄 수 있기 위해 너희의 믿고 사랑하는 헌신을 원한다.

아멘

너희가 축복되기 원하면, 너희 모두가 복종해야만 하는 영원한 법이 있다. 너희는 실제 이 법을 이탈할 수 있고 위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축복을 포기한 것이고 모든 조화가 사라지고 불행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영원한 법은 사랑이다. 그러면 너희가 사랑에 대해 죄를 짓는다면, 너희는 이제 언제 법을 어겼는지를 알 수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질서와 조화와 온전함이 있고 그러므로 또한 축복이 있다. 사랑을 무시하면, 다른 모든 것도 파괴되고 사랑없음으로 인해 다른 불법적인 속성들이 발생한다. 이런 모든 일이 비참한 상태를 만들고 악을 잉태하고 이 악이 끊임없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축복되기 위한 조건인 어떤 조화도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의 질서의 법에 어긋나고 사랑에 대항하는 삶은 혼란스러운 상태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이런 삶은 절대로 건설적인 삶이 아니고 항상 볼 수 있게 파괴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제로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간과할 수 없는 혼돈이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고 이로써 창조물의 주된 목적인 창조물 안의 영적인 존재가 성장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한다. 경계를 넘는 때가 오고 인류에게 사랑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벗어나면,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시킨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은 아주 고통스럽고 잘못 된 것을 올바르게 하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만드는 엄격한 손이 필요하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저항하며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없음을 통해 그들이 완전히 질서를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의 저항을 꺾을 수 있는 정화시키는 불을 거쳐야만 한다. 또는 그들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속박을 통해 영원한 질서를 지키도록 그들에게 강제를 행사해야만 한다.

영적인 존재의 구원을 위해 질서가 회복되어야만 한다. 사랑이 다시 이 땅을 다스려야 하고 이 땅의 거주자들에게 다시 조화와 행복이 보장되어야만 하고 이 땅의 거주자들이 영원한 법에 순종해야만 한다. 즉 이 땅의 거주자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고 영원한 사랑 자체인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된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성취시키는 일이 비로소 영적인 존재를 속박에서 해방시킨다. 그러나 한 구원시대가 끝나기 전에 언젠가 영적인 혼란이요 세상적인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적인 파괴로 이끄는 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의 법을 어기는 영적인 존재는 다시 속박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질서가 언젠가 확립되어 이로써 선한 존재가 축복에 도달할 수 있고 악한 존재는 파문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요 하나님에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야만 하고 그의 뜻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선하고 공의한 하나님이다. 내 피조물들에 대한 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나는 모두를 축복되게 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전해주기 원한다. 왜냐면 사랑이 이렇게 하게 나를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최고로 온전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영원한 내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만 한다. 모든 내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 공의도 내 온전함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내 피조물들에게 증명하기 원하는 내 크고 넘치는 사랑에 제한을 가한다. 나는 죄를 범한 존재를 축복되게 할 수 없다. 왜냐면 이는 내 공의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내 영원한 법칙에 의해 묶임을 받는다. 사랑은 단지 온전한 존재만을 축복할 수 있고 이 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없게 축복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실제로 죄를 지은 존재들이 자신의 죄에서 자유롭게 되게 도우면서 공의가 은혜를 허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한 의지는 존재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의식해야만 하고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갈망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들의 의지와 반대로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 나는 존재가 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 스스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고 내 공의를 만족시킬 때까지는 내 사랑으로 존재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내 생명으로 부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은 나를 대적했다.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내 공의가 사랑이 이전과 같이 존재들을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되게 역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 끝없는 사랑에는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만약에 존재 스스로 전적으로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절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죄이고 이로써 내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어 내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존재들은 영원한 동안 내 사랑의 흐름에 영역에서 쫓겨났어야만 했다.

그렇지라도 존재들이 언젠가 다시 내 사랑의 비추임을 받아서 행복하게 될 수 있게 되려면 영원한 신적인 법칙에 따라 속죄는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구속사역을 인간 예수가 나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들의 불행한 상태를 깨닫고 이를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해결하기를 원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완성했다.

이를 통해 내 공의는 만족 되었다. 내 사랑은 이제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되었고 나로부터 한 때 생성되어 나온 존재에게 사랑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에게 나 자신이 영원한 사랑으로써 그들에게 부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존재를 측량할 수 없이 행복 하게 만드는 축복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한때 나를 떠나간 죄가 범죄한 존재에 대한 내 사랑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한 존재 의지와 반대로 그에게 사랑의 힘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그의 저항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 온전한 상품의 속한 공의가 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내 온전함의 근거인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다시 내 사랑을 받을 수 있기 위해는 이 전에 그의 죄짐이 해결돼야만 한다. 인간 예수는 이 법을 성취시켰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모든 죄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한때 타락한 자들의 모든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큰 희생 제사를 드렸다. 나는 이런 희생의 제사를 영접했다. 나는 나를 떠났던 존재들이 그리고 사람들 자신이 짊어진 측량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대가로 만족했다. 나는 인간이 예수의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속하기를 원해 드린 희생 제사를 받아들였다.

예수 안의 사랑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나 죄사함은 내가 고난받을 능력이 있고 고난을 받을 의지가 있는 타락한 자들의 죄짐에 대한 대가로 측량할 수 없이 고통을 스스로 당한 한 사람의 형체 안에서 단지 완성시킬 수 있는 속죄를 행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로써 공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대가가 지불되었다. 이제 내 사랑이 다시 역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은 자신을 선물하고 피조물들을 측량할 수 없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피조물들은 다시 죄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와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고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전적으로 내 사랑으로 비추어 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다. 내 사랑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 사랑은 무엇보다 한때 죄를 지었던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죄를 자유의지로 십자가 아래 내려 놓아서 이를 예수에게 전가해서 내 공의를 회피하지 않으면서 그럴지라도 이 존재들이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돕는다. 왜냐면 사랑 자신이 자기를 희생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왜냐면 한때 타락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자신들의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들에게 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선물해주길 원하는 축복을 줄 수 있기 위해 그들이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죄짐으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 내가 공의한 하나님으로서 요구해야만 하는 속죄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준비가 되어있는 예수 안의 사랑 자신이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큰 죄에 대한 보상이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왜냐면 내 온전함은 질서의 법칙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 공의가 속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심판. 구속사역.

B.D. No. 8062

1961년 12월 13일

나는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내 사랑은 내 피조물인 너희에게 항상 영원히 속해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사랑으로 옳지 못한 것을 좋다고 할 수 없다. 나는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너희를 내 사랑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너희 죄를 벌한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 죄를 통해 축복되지 못한 상태를 너희 자신을 위해 불러 일으킨 것이다.

너희가 나와 거리를 둔 것이다. 이것은 항상 불행을 의미한다. 왜냐면 내 사랑이 너희를 더 이상 감쌀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이 죄를 통해 간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영원한 질서를 어기며 너희에게 역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내 공의를 만족시키

기 위해 너희가 내 사랑을 받기 위해 나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해 내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따라 속죄를 요구한다.

내 성품은 사랑과 긍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넘치는 인내심이 있다. 그럴지라도 내 공의는 무시할 수 없다. 왜냐면 공의도 아주 온전한 내 속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심판이 너희에게 딱치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항상 너희 자신이 원인이 된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축복 되기 위해서는 다시 질서 안으로 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속죄의 역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항상 단지 잘못 방향 된 사람의 의지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의 상태는 즉 죄의 결과이다. 죄를 속죄하게 하기 위해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다시 나에게 가까이 가게해주는 상태로 가게 하기 위해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내 사랑으로 축복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런 상태를 내가 허용한 것이다.

이런 심판은 항상 단지 교육수단이다. 너희를 다시 나에게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절대로 이는 내 분노의 증거이거나 표현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분노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내 공의가 나로 하여금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해 너희 자신이 너희의 죄의 결과를 느낄 수 있게 만든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심판을 스스로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모든 육체적인 또는 영적인 위험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너희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면, 너희 자신이 이 심판을 너희를 위한 축복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아주 커서 모든 죄인을 영접한다. 나는 그의 죄를 용서한다.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에게 너희 죄를 드리면, 더 이상 너희에게 속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는 너희의 예수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 동안에는 너희가 항상 나와 간격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항상 단지 너희에게 너희가 죄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영접할 수 없는 내 공의의 증거인 형벌의 형태로 너희를 얻으려고 해야만 한다.

그러면 죄를 지은 결과가 너희들 스스로에게 임한다. 그러면 너희는 고난과 고통과 모든 종류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 죄에 대한 대가이다. 너희는 속죄를 한다. 너희가 죄를 상쇄해 나가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너희는 십자가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너희 모두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다시 영접할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축복된 운명을 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내 사랑을 선물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공의가 만족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에게 항상 내 끝 없는 사랑과 긍휼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은 두려움 없이 나에게 나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나에게 구해야 한다. 나는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갔다. 나는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했다. 나는 이를 이해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큰 사랑으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내 긍휼은 그들을 돕길 원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나에게 다가와 자신을 나에게 의탁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가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도우려는 나를 신뢰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내 사랑을 알아야만 한다.

왜냐면 죄인은 아직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대적자에게 빠져 있다. 그러므로 그가 내 대적자로부터 도망치지 못한 동안에는 그는 죄인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가 내가 그를 도와 주게 나에게 도피하면, 그가 나를 선한 재판관으로 깨닫고 그가 내 권세 앞에 자원해 복종하면, 그는 비로소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죄지은 자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긍휼이 없는 심판자요,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 사랑과 긍휼은 제한이 없다. 너희의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눈과 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 주길 원한다. 너희는 이를 믿을 수 있다. 왜냐면 너희 모두는 내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내 피조물이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내가 사랑할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너희의 죄를 깨달아야만 한다. 너희는 너희가 죄악되게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해야만 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 나와야만 한다. 너희는 예수 안의 나에게 너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로써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임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내 공의가 너희에게 축복을 내려줄 수 없지만 아주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공의가 내 온전한 성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피하게 해줄 수 없는 내 공의에 너희가 빠지지 않게 너희 스스로 항상 단지 너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올바른 균형을 이루려고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단지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기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내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 죄를 전적으로 용서받는 일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면 내 사랑이 이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죄인을 부른다. 나에게 다가 와 십자가 아래로 나와 너희의 죄짐을 내려 놓으라. 너희는 너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과 긍휼이 너희에게 축복된 운명을 준비해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가 한때 너희를 생성되어 나오게 한 나에게 돌아오길 원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가 종말의 때에 큰 권세를 갖는다는 것을 그가 그의 권세를 모든 방식으로 활용함을 너희는 안다. 그의 권세는 너희 사람들 스스로 그에게 허용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그의 의지를 따르고 너희가 아주 적게라도 그의 유혹을 물리치거나 또는 저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심각한 혼동을 너희 사람들 가운데 일으킬 수 있게 그 역사를 허용하는 것은 너희 자신들이다. 왜냐면 너희에게 전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는 너희를 전적으로 자신의 권세 아래 두기 때문이다. 사랑이 너희를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했을 것이다. 왜냐면 그 자신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 스스로도 사랑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 앞에 조건 없이 패배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사랑을 활용하지 않고 그와 같은 존재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항할 힘도 없다. 그러므로 그가 너희의 생각 안에서 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너희를 오류로 인도하는 것이 그리고 너희가 항상 단지 그가 원하는 것을 수행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에게 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너희 사람들이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의 의도는 너희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는 것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가장 악한 행동들을 하게 자극해 너희가 계속하여 죄를 짓게 자극하고 내 모든 사랑의 계명에 반대되게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의 의도는 더 나아가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 빛이 비치는 모든 곳에서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가 빛을 꺼 버릴 수 없는 곳에서는 그는 빛을 흐리게 만들려고 하고 그 옆에 현혹시키는 빛을 비추어 눈이 부시게 해서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이 올바른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자신에게 속한 자를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미 자기를 떠나 나에게 향한 사람들을 다시 얻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 그는 이런 노력을 종말의 때까지 지속해 나갈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그의 욕망을 따르는데 자원하게 될 것이고 그가 의도하는 대로 죄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는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의 생명을 파괴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는 다시 모든 종류의 파괴하는 역사를 위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면 아직 그에게 속한 영적인 존재들을 피조물 안에 담고 있을지라도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세가 그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창조의 작품을 파괴시킬 수 없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끝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을 같은 의지를 갖게 자극할 수 있다. 나는 그를 막지 않는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 대적자가 그에게 속삭이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이 그대로 행하면,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대적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 나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나는 다시 그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고려한다. 그러나 내가 항상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 왜냐면 내가 실제로 악한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악한 사람의 공격에 희생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사람을 보호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를 안다.

나는 내가 그의 이 땅의 삶을 위해 정해진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인지 안다. 나는 혼이 깊은 곳으로 다시 후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혼을 불러들인다. 만약에 이 혼이 이미 어느 정도 성장했거나 또는 영의 나라에서 구속사역에 참여하게 해 이 혼을 영의 나라에서 계속 사용하기 위해 인간의 혼을 불러들인다.

그러나 이 땅에서 더 이상 성장을 나타내지 않거나 또는 이 땅에서 그의 과제를 끝낸 것으로 내가 보는 혼의 삶을 어떻게 마치게 할지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결정을 한다. 왜냐면 나는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기 때문이다. 비록 내 대적자가 아주 잔인하게 행하고 그가 자신에게 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워하는 행동과 사랑이 없는 행동을 하게 자극할지라도 그는 한 사람의 생명을 마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단지 사람을 중매자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아주 악한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항상 내 의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에 대해 모든 혼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대적자 자신도 종말의 마지막 때에 그의 역사로 인해 묵임을 받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실제로 내 대적자의 의지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보장할 것이다.

나는 그들 자신들의 의도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비록 이것이 아주 악하다 할지라도 막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나타나는 효과를 정하거나 또는 이를 허용한다. 악마적인 공격에 의해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면 내 의지가 생명의 종말을 미리 정한 것이다. 내가 그를 불러들일 때가 되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이 사람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비록 내 대적자가 이제 성공을 할지라도 그는 단지 내 영원한 구원계획의 도구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해가 되는 계획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 먼저 사람의 자유의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원한 내 구원계획 안에 고려가 되어 있다. 내 대적자도 그의 의지를 통해 이 구원계획을 도와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자극하고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한 또는 그를 위한 결정을 할지 자신의 자유의지를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결정에 따라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적자는 실제로 아주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내 의지가 내가 단지 나만이 알고 있는 결과를 내다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의 역사를 인내할지를 결정한다.

아멘

"나 자신이 말씀이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

B.D. No. 4909

1950년 6월 4일

내가 높은 곳에서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는 이 복음이 나의 제자들이 나의 사명을 받아 기록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서든지 내 말씀을 받으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나는 내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했고, 오늘도 말한다. 왜냐면 내 사랑에 제한이 없고, 그러므로 내 말씀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나의 말씀을 통해 표현되는 내 사랑의 발산은 절대로 멈추지 않

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말씀이 진정으로 원래부터 무엇인지를 안다면, 너희는 이 말을 실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이 말씀이다. 이 말은 내가 이미 문자에 나 자신을 묶여 있지 않고, 내 말씀이 항상 영원히 이 땅의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에게 전해진다는 증거가 되어야만 한다. 나의 말씀은 실제 영원히 똑같다. 왜냐면 내 말씀은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너희의 의지를 통해 내 말씀을 변개시킬 수 있고, 너희의 영이 아직 깨우침을 받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가 나의 말씀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내가 항상 나의 순수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 땅으로 전해줘야만 한다. 이로써 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야 한다: 하늘과 땅은 사라지지만 내 말씀은 영원히 머문다. 내 말씀은 나와 나의 사랑에 대해 항상 또 다시 증거하는 하늘에서 온 순수한 복음이다.

너희 인간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는 온전한 어떤 것도 온전한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온전하지 못함을 통해 항상 변경시키려는 추구를 한다. 어떤 것도 불결한 환경에 들어가면 아주 순수한 상태로 머물지 못하는 일은 자연의 법칙이다. 인간의 의지는 훨씬 더 온전하지 못한 쪽으로 향하고, 항상 자신 위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일은 자유의지이고, 내가 간섭하지 않는다. 이로써 내가 강제적으로 내 가르침을 순수하게 유지하지 않고, 너희가 갈망하는 순수한 가르침을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제공한다.

진리를 향한 가장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원래 순수했던 나의 가르침이 변개된 일을 절대로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류가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내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영접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영의 눈이 멀었고 문자에 매여 있고 내 말씀 안의 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지치지 않을 것이고, 난 절대로 영원한 내 사랑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통해 너희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한 대로 나 자신이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다가가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나는 생명이고, 힘이고, 나는 또한 빛과 사랑을 주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 가까이에 거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사랑의 말씀을 듣기 원하면, 너희에게 항상 사랑의 말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승천한 후에도 영 안에서 이 전에 이 땅에서 역사한 것처럼 역사하는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기 원한다. 이로써 그들이 나를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 안에서 이 땅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에게 단지 내 제자들이 복음으로 나에게서 받은 것과 같은 것을 전할 것이다. 왜냐면 비록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복음은 보존되어야 할 순수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말씀이 전달됨.

B.D. No. 3596
1945년 11월 7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는 말씀 안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를 홀로 두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느껴야 한다. 이처럼 나는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왜냐면 말씀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나의 임재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내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느낀다. 나 자신이 영이고, 물질의 형태에 묶여 있지 않고, 최고의 가능성을 가진 힘과 빛이고, 그가 가진 의지와 그의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 존재라고 해야만 하고, 사랑과 지혜로 역사하고, 그러므로 무한을 향해 빛과 능력을 발산한다.

힘과 빛의 원래 초기의 성분을 가진 힘과 빛을 받을 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한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나의 사랑이 빛과 힘에게 형체를 부여했다. 이 형체가 나의 말씀이다. 너희가 성숙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자체가 빛과 능력인 영은 단지 빛과 능력으로부터 나온 형체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발산인 말씀 안에 빛과 능력이 담겨 있고, 나의 말씀이 내가 가까이에 있음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고, 이와 동시에 빛과 능력을 영접하기 원하는 너희에게 나의 영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가 나의 임재를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비록 내가 볼 수 없게 너희와 함께 하지만, 너희가 말씀 안에서 나를 깨달을 때, 너희는 나의 임재에 대한 증거를 너희 손에 가지고 있다. 왜냐면 나 자신이 말씀이고, 너희가 나와 나의 임재를 갈망할 때, 너희는 말을 중단없이 받기 때문이다. 말씀 안의 나를 깨닫는 사람은 나의 임재 때문에 깊은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의심이나, 어떤 불안함이나, 어떤 염려도 그를 떠난다. 왜냐면 육체와 혼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그를 도우려는 존재가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뜻은 능력과 축복을 주는 것이다.

왜냐면 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서 거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심장의 문을 열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않는다. 왜냐면 그의 의지가 한번 나에게 향했고, 말씀 안의 나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말씀은 내가 표현하는 수단인 형체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형체를 통해 영원 전부터 온전한 영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인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낸다. 나는 너희 가까이에 있다. 나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거나 또는 받는 사람의 입을 통해 나의 말을 받은 너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며, 염려하느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왜냐면 너희가 나의 말씀을 갈망함을 통해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증명하기 때문이다. (1945년 11월 7일)

너희에게 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가정 안전한 증거임을 너희에게 줘야만 한다. 나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임재를 원하지 않고, 심장이 나에게 다가가도록 그에게 재촉하지 않는다. 왜냐면 나의 사랑의 표현된 후에, 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난 후에, 이런 소원을 갖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에 대한 소원은 아주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이 영적인 격려를 통해 위로를 받고, 강해지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영적인 분야에 지식을 더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고, 나에게 대한 감사함으로 나를 생각하고,

이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그는 나와 단둘이 깊이 있는 교제를 원할 수 있고, 생각으로 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그의 감각이 항상 영적인 방향을 향해만 한다.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찾게 할 것이고, 그의 부름이 나를 그에게 인도한다. 나는 나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나를 알려줄 것이다. 왜냐면 다른 방식으로는 그가 나의 임재를 건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나의 음성을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영에게 직접 역사하거나, 직접 나의 음성을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위임으로 그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영의 세계에서 생각을 통해 그에게 전하거나, 내가 이 땅에 전해준 말을 읽음으로 받거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 받는다. 나 자신이 나에게 요청하는 심장을 항상 받아드릴 것이고, 스스로 나를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말씀이고, 그러므로 진실된 의도로 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내가 말하도록 허용하는 사람 곁에 나 자신이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하늘의 양식인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줄 것이다. 그가 나 자신을 먹고 마시기 위해 내적으로 깊이 나와 연결돼야만 한다. 나 자신이 말씀인 것을 깊게 믿고, 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의 심장으로 나를 영접한다. 나는 나의 임재로 그를 항상 행복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나의 약속은 말 그대로 성취된다. 왜냐면 나의 말씀은 진리이고, 모든 영원까지 진리로 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편재. 존재와 힘.

B.D. No. 3398

1945년 1월 9일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고, 그의 영은 장소와 시간에 묶여 있지 않다. 왜냐면 그의 영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임재한다. 그러나 이 힘에 인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이 힘을 부를 수 있다. 왜냐면 생각과 의지가 이 힘에 함께 하고, 마찬가지로 생각과 의지의 힘의 발산인 존재의,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고 단지 가장 작은 정도인 존재의 부름을 통해 생각과 의지가 항상 역사한다. 존재는 가장 온전한 존재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 온전함에는 제한이 없고,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성을 파악할 수 없다. 왜냐면 인간은 단지 제한된 정도로 알고, 제한이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게 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그가 영원한 하나님을 존재로 상상하려고 시도하면, 이미 단지 지역적으로나 공간적으로만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제한된 무언가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힘이라는 표현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이는 그 자체가 진리이지만, 인간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결합을 크게 손상시킨다. 왜냐면 인간의 이성애 따르면 이런 관계는 단지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진 존재와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결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재로 인정해야만 한다. 이 일은 아주 쉽게 가능하다. 왜냐면 모든 창조물이 그의 전능함을 통해 형체가 된 의지를 나타내고 가장 깊은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완전한 사고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의 작품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또한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 왜냐면 모든 창조 작품은 하나님의 힘의 나타남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한 존재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훨씬 더 영접할만 하게 보인다. 왜냐면 창조물의 의미와 목적이 지혜가 충만한 의지가 창조물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고, 의지가 있는 곳에 이런 의지를 자신에게 향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하는 생각을 통해 연결을 이룰 수 있다. 왜냐면 사람이 생각을 통한 부탁이 어디서나 언제든지 전달이 된다는 확신을 얻었고, 온전하고 때문에 사랑과 권세가 충만한 존재가 이 부탁에 응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인격화 할 수 없다. 왜냐면 그런 일은 인간의 생각에 따른 제한을 가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편재성을 믿기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형체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힘이 즉 하나님의 발산이 자신을 드러냈다. 즉 하나님의 발산이 육체의 형체를 완전하게 모두 채웠고, 동시에 이 걸형체를 살아 있게 해서 하나님을 상상해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신의 모든 생각이 형체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풍부한 능력과 빛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보게 하려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체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장소와 시간에 묶여 있고, 형체가 완전히 영화 되었을 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지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 영의 나라에서 눈으로 이 형체를 볼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모든 곳에 항상 거하고, 역사한다. 즉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지를 통해 형체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존재여야만 한다. 왜냐면 그의 의지와 그의 지혜를 그의 힘이 창조한 모든 것에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신성이 자신과 연결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또한 하나님이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인간이 영원한 신성을 유일하게 힘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로 연결을 이루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이 땅의 삶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선행조건을 성취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기도는 실제 편재하는 존재에게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의지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특징을 부인하는 힘에게는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직접 말해주는 것을 통해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큰 은혜는 너희 사람들에게 없다. 왜냐면 나는 너희에게 임재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가 단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계시를 통해 내 임재를 너희에게 증명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왜냐면 비록 너희들 안에 단지 아주 작은 하나님인 내 영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의 불씨가 자신을 나타내면, 너희는 항상 나 자신이 너희 안에 거하고 역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로부터 진리에 합당하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아직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결과를 주는 최고의 성장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말씀을 받는 것을 가치가 있게 여겨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아주 크다.

내 대적자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 이 권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특별하게 도움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내 하나님의 영의 불씨를 불타오르게 하지 않으면, 영의 불씨에 불을 지펴주고 너희 스스로 이제 영의 불씨가 역사하게 허용해 주는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나를 나타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너희 내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가 나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음성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영의 불씨가 말하는 것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 내 사랑이 비추어 지고 넘치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게 되기 위해 너희는 먼저 나와 내적인 긴밀한 연결을 이루어야 한다. 나는 항상 너희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내 임재를 증명해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허용하면, 다시 말해 너희가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고 내면에 귀를 기울이면, 나는 항상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를 진실로 축복되게 만들어 주는 넘치는 부유함을 선물해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충만한 빛을 선물해 주고 너희 혼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을 진리에 합당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나는 내 사랑을 너희에게 비취주고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족한 내 사랑을 너희에게 선사해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 영의 역사에 대해 자주 설명해 주고 너희에게 인간의 이성을 통한 지식에 실제로 제한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내 영의 역사를 통해 얻은 지식에는 절대로 제한이 없음을 알게 해줄 것이다.

이런 지식은 진실로 제한이 없다. 그런데 영원으로부터 빛이요 진리인 나 자신으로부터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나 자신만이 너희에게 이런 지식을 전할 수 있다. 나는 진실로 내가 내 빛이 비추어 질 수 있는 이 빛을 어두운 밤에 비추어 줘야 하는 올바른 그릇을 구한다.

그러나 이런 그릇을 구하는 것이 단지 희귀하게 가능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심장이 아니라 이성이 말하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 저항한다. 내가 직접 역사하는 것이 가능한 곳에서는 빛이

강하게 비추어 저서 단지 저항하지 않고 빛을 받아들이는 즉 이제 직접 내 음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빛을 비추어 줄 수 있고 비추어 지게 될 것이다. (1962년 2월 6일)

나는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들이 서서히 다시 원래 초기에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들이 다시 이런 상태가 되야 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빛을 비추어 주기 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 안에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에게 생각으로 제공될 것이다. 그가 진리를 체험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 그의 생각은 올바르게 될 것이다. 그는 내 의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 의지를 성취하려고 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와 관계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로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확실하게 항상 밝은 빛이 비추어 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단지 나와 생각으로 연결을 시키면, 그가 나를 대항하는 모든 내적인 저항을 포기하면, 그는 내 사랑의 비추임에 자신을 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그 안에 가장 작은 하나님의 불씨로써 거하고 있다. 이런 내 임재에 대해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나는 역사할 것이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 일지라도 사람들의 성장 정도에 합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을 계시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나를 깨달을 수 있다. 내 사랑의 비추임은 그가 의식적으로 자신을 열고 나를 갈망하고 그에게 충만하게 주어질 내 사랑을 갈망할 때까지 항상 또 다시 그에게 접근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피조물들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축복 되길 원한다. 나는 그들이 내 큰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내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연합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내 피조물은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 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빛이 스스로 비추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그에게 임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진실로 깊은 곳으로 타락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낸 영이다.

B.D. No. 7828

1961년 2월 17일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좁게 제한 된 존재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를 한 형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항상 너희가 마음에 그려보는 것은 잘못 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절대로 최고로 온전한 내 상품에 그러므로 제한이 없는 내 성품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채우고 있고 모든 것에 비추어 주는 영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피조물들이 나를 영원히 헤아려 볼 수 없게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내 피조물들이 최고로 온전하게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을지라도 이 존재는 영원한 빛과 능력의 근원을 볼 수 없는 개인의 존재로서 내 영원한 사랑의 불바다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단지 빛의 불씨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내 모든 충만한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에게 비춰지는 빛 때문에 그들은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 외에는 다

른 개념을 가질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 안에서 영원한 무한한 영이 자신을 나타내었다. 그 안에서 너희는 나를 보고 대면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내 사랑과 내 능력으로 생성시킨 내 피조물인 너희를 위해 형체를 부여했다. 모든 무한을 채우고 있는 영원한 영이 형체에게 비추어 너희를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렇지라도 나는 모든 무한한 가운데 사역하고 역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성품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단지 너희 스스로 아직 제한 가운데 있고 아직 최고의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한 너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 안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개념이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온전함으로부터 아직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의 상태에 합당하게 너희를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최고로 온전함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내 성품을 헤아려 볼 수 없고 헤아려 볼 수 없게 남는다. 내 자녀들이 항상 나를 추구하고 그들의 소원이 항상 성취되는 일을 통해 나에게 의해 항상 행복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영원히 나에게 도달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다.

이는 너희에게 신비로 남을 것이다. 너희가 비로소 빛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이해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 성품은 영원히 헤아려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끝 없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너희 가까이 있다.

이런 의식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은 계속하여 증가되고 축복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성취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제한이 없는 축복을 선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항상 뜨겁게 불타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형체에 묶여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모든 무한한 세계를 내 빛과 내 능력으로 헤아려 볼 수 없고 헤아려 볼 수 없게 남을 내 성품으로 채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내 자녀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피조물인 너희는 예수 안에서 나를 구하고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영접한 그를 내 형체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한때 인간적이었던 이 형체가 전적으로 영화 되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성장 정도에 도달한 모든 존재에게 볼 수 있게 남는다. 그러므로 그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보면, 내 영원한 영을 보는 것이다.

너희가 그를 보면, 너희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전적인 사랑을 얻기 위해 내가 창조한 존재들인 너희를 위해 볼 수 있게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끝 없이 충만한 능력과 빛을 소멸되지 않고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내 자녀들과 창조하고 조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축복을 높여 주기 위해 나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나 자신이 그들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내 자녀 가까이에 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B.D. No. 8141

1962년 4월 3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영원한 말씀인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육신을 입었다. 나로부터 끝 없이 멀리 떨어져 있고 더 이상 내 음성을 들을 능력이 없고 더 이상 자신 안에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영원한 말씀과 전혀 어떠한 연결도 없었던 사람들과 내가 연결을 이루려고 한 일은 아주 큰 사랑과 긍휼의 역사이다.

이렇게 나와 멀리 떨어지게 만든 잘못이 그들 자신에게 있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와 이 큰 간격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원래 초기에 내가 나로부터 생명으로 생성된 모든 피조물들과 말씀을 통해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말씀을 듣는 일이 그들에게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내 사랑 자신이 이 큰 간격을 극복했고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육신을 입고 이제 내 피조물들과 대화하기 위해 그들이 빛과 축복의 나라에 있는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다리를 놓기위해 그들과 연결을 이루기를 구했다.

나 자신이 영원한 말씀이다. 그러나 한때 나로부터 자유로운 피조물로 생성되어 나온 그들을 강요 상태로 만들지 않기 위해 나는 높은 곳으로부터 어떤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고 그들이 나에게 인도하는 다리에 모든 자유의 의지로 들어서야 한다. 나는 이를 단지 내 음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하게 울려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육신을 입었고 나는 인간의 겉형체 예수를 입었고 내가 이제 사람 안에서 말한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은 내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었고 그들을 가르치고 내 의지를 알려 줄 수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말씀을 자신 안에서 다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는 의지가 진지하면, 모든 사람 스스로에게 듣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랑의 가르침을 선포했다. 그러나 내 영을 부어주는 일을 통해 나와 연결을 이룰 수 있고 사람 스스로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내 음성을 자신 안에서 들을 수 있기 위해 사람들은 먼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받아야만 하고 이전에 한때 나로부터 타락했던 죄짐을 해결받아야만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느냐? 인류가 가장 큰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 스스로 이 땅에 임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신들의 불쌍한 상태와 빛이 없는 상태와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전적으로 나로부터 떨어져 있고 이런 큰 간격을 줄이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단지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만 하고 나 자신이 의지를 그들에게 전해 줘야만 한다.

나 자신이 그들에게 말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단지 한 사람을 통해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 한 사람 안에서 육신을 입었고 단지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 모든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다시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주는 길을 가게 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 된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들에게 내 뜻을 알려 주기 위해 그들 스스로 살아야 할 삶을 내가 그들 앞에서 모범적으로 살았다. 왜냐면 그들은 항상 사랑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내 대적자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2년 4월 3일) 이 가운데 그들은 무능했고 무능하게 머물러서 어떤 성장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힘으로 역사한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나는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단지 사랑의 힘만이 줄 수 있는 다른 기적들을 행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삶의 결과를 설명해 주었다. 왜냐면 나는 그들에게 먼저 왜 그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위험 가운데 있는지 설명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인간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축복된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이 축복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해야만 했다. 그들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 받아야만 하고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말씀 자신이 이 땅에 임해 육신을 입었다.

원래의 상태일 때는 말씀이 모든 존재에게 들렸고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근원이었다. 존재들이 이런 축복을 스스로 버렸다. 왜냐면 그들의 자유의지로 나를 떠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말씀은 나로부터 직접 온 사랑의 비추임이고 존재가 이런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사람들의 아주 큰 위험이 내 사랑과 공휴이 나 자신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게 만들었고 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그들을 대면하게 했다. 자신 안의 사랑의 불씨를 불타오르게 하는 사람은 나를 깨닫고 내 말을 영접하고 그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서 단지 사람을 보고 내 말을 단지 사람의 말로 평가를 한다. 나는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나를 깨닫지 못했다. 그럴지라도 나는 사랑의 복음을 선포했고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항상 또 다시 설명해줄 수 있었다. 나는 내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며 나 자신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낼 수 있었다. 말씀 자신이 이 땅에 임했고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내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는 항상 내 끝없는 사랑과 공휴이 사람들에게 향하고 사람의 심장을 비추어 준다. 이런 심장은 내 사랑을 자원해 내 말씀을 받아드리고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깨닫고 큰 은혜의 선물에 대해 나에게 감사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나 자신과 긴밀한 연결에 이르게 되고 이 땅의 자신의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그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인 나와 전적인 연합을 이룰 것이고 최종적으로 나에게 귀환할 것이고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인간 예수 안에서 무한하게 타올라 그의 혼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힘으로까지 커졌다. 이런 상태는 그를 인간의 세상적인 영역을 넘어선 상태였고, 그는 나와 하나가 된 상태였다. 그런 강한 사랑이 단지 십자가의 희생을 드릴 수 있었다. 왜냐면 사랑의 힘이 그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가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희생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 죽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을 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자신을 영을 포기하기까지 사랑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희생을 했고,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이 일은 또한 비밀이고, 이 땅이 존재하고 너희 인간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구속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비밀로 머물게 될 것이다.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했다. 너희 인간이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랑이 영원한 신성의 원래의 입자이고 그러므로 사랑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는 역사를 성취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겉보기에 모순이 되지만, 이는 진리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랑이 거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 사람은 이미 신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이미 죽게 되지 않은 그가 당한 아주 큰 고난이 이를 증명했다. 그의 인류를 향한 사랑은 아주 깊어 인류를 돕기 위해 고난받기를 원했다.

그는 초인간적 고통으로 인간의 몸의 생명력을 빼앗기에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힘이 그의 원수들이 그의 육체를 일으켜 세워 십자가에 못박을 때까지, 그의 고통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의 몸이 살아있게 했다. 그는 내 대적자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일을 허용했고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죽음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자임을 보여주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모든 인류가 그의 죽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인 마지막 때까지 나와 연결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워하는 혼은 더 이상 나를 깨닫지 못했고, 자신 밖에서 나를 찾았다. 그러므로 예수가 다음 말을 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당신은 저를 버렸나이까?" 권세가 충만한 하나님이 물러났을 뿐 사랑이 그 안에 있었고, 머물렀다. 사랑은 실제 자체가 힘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히는 일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이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십자가에 못박히는 일을 당할 수 있기 위해 사용했다. 왜냐면 예수는 인간으로서 나를 섬기고, 이웃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의식적으로 죽었고,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나에게 구했고,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나에게 다음 말을 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손에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그는 자신과 나 사이의 연결을 유지했다. 왜냐면 그가 사랑을 통해 자신과 하나가 된 존재로부터 자신을 더 이상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였고, 그가 나였다. 우리 둘 사이에 더 이상 분리가 없게 되었다. 왜냐면 나 자신의 원래의 입자인 사랑이 또한 그를 전적

을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인간 예수가 그의 역사를 완성할 때까지 내가 힘으로서 역사하지 않고 머물렀지만, 내가 그와 함께 하고 그 안에 거해야만 했다.

그와 나, 우리는 하나이고 그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다. 왜냐면 아버지는 사랑이고, 사랑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죽을 수 없고, 삼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사랑이 또한 이 땅에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고, 예수의 고통을 통해 완전히 영화가 된 육체가 살아나게 했다. 이로써 사랑이 죽음을 극복했고, 하나님의 구세주는 사탄이 이겼고, 빛이 어두움을 물리쳤고, 영원한 빛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아멘

삼위 일체.

B.D. No. 2056

1941년 9월 3일

하나님의 삼위 일체의 교리는 이미 신자들 사이에 가장 큰 분열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교리를 바로 잡지 않는 한, 즉 수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한, 이런 교리는 항상 문제가 될 것이다.

영적인 어두움이 이런 교리를 만들었다. 영적 어두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을 했고, 이는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기에 충분했다. 삼위일체에 대해 생각을 해본 사람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단호히 거부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교리는 무조건 받아드려야만 하게 되었던 신앙의 교리이고, 이런 신앙의 교리를 영접하도록 강제로 요구함으로써 거부하는 일을 막았다.

세가지 인격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교리이다. 하나님을 실체로 상상하는 일은 인간에게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실체는 사람에게 고정된 형체의 개념이고, 고정된 형체의 개념이 없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그는 고정된 형체에게 형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합당한 일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진리를 벗어난 것이다. 삼위 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세우는 일은 단지 하나님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제한된 생각을 통해 영원한 신성에 대한 왜곡된 설명을 만들어 냈다. 하나님의 삼위 일체의 개념을, 단지 믿음과 사랑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려는 의지를 통해,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설명할 수 있다.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한 사랑 안에 거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순전히 이성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일은 목표로 이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해 진리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영의 나라로부터 생각을 통해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알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믿음과 사랑은 또한 더 나아가 진리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진리에 합당하게,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들은 모든 일의 연관 관계와 초기의 역사와 목적 및 목표에 대한 가

르침을 받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들은 모든 것을 통해 흐르는 힘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끊임없이 활동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창조물과 이런 능력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 알게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모든 지혜를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채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능력을 받고, 이로써 그는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면, 그는 이제 영원한 신성에 대한 비밀을 헤아려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이다. 이런 영적인 것이 이제 사람에게 흘러가면, 그는 다른 헤아릴 수 없는 영역으로 침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결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이성의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영원한 신성의 본질에 대한 신비가 신비로 남게 될 것이다.

삼위 일체의 교리는 이제 인간의 이성에 의해 해석되었고, 세개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교리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절대로 인격화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이를 통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영원한 신성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다. 사랑은 모든 것의 생산자이다. 사랑은 우주의 아버지이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원초적인 힘이다. 모든 것이 사랑에서 생성되었고,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사랑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다. 사랑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모든 것을 생성시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원한 신성의 성품이다. 사랑과, 지혜와, 의지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하려는 의지가 형체를 입었다” 라는 말들은 “아버지, 아들, 성령” 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지를 움직여서, 창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이 지혜로써 육신을 입었다.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게 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지혜를 이해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삼위 일체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받아드릴 수 없는 믿음의 교리를 어느정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가! 왜냐하면 인격을 가진 신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모든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의 나라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 순수하게 세상적인 것을, 영의 존재들에게 적용하다. 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 "그들은 하나이다." 라는 추가된 문구가 있을 지라도, 오류에 빠지게 한다.

사람이 이에 관해 생각을 한다면, 사람은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해 생각하는 일을 금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명함을 주기 원한다.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 사람이 눈이 먼 가운데 길을 걷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자신에게 지식이 없고, 그들의 영적인 지식을 영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성의 생각과 이성적으로 세워진 가르침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진실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단지 영으로 헤아려볼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

B.D. No. 7648

1960년 7월 15일

사람들이 나를 믿을 지라도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나는 멀리 있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들은 나를 멀리에서 찾고 내게서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아직 한자녀로서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에게 감히 말하지 못하고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면 친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여지 없이 심판하는 판사, 곧 벌을 주는 하나님만을 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내 무한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둘만의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들은 내 사랑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함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나와 가까워져 나에게 의해 자녀로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그들은 나로부터 여전히 멀리 있고 이로써 내 능력이 관통해 흐를 수 없다. 그들에게 이런 지식을 전하는 일이 어렵다. 왜냐면 그들에게 나는 가까이 다가 갈수 없는 존재이고 그런 존재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 존재는 사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위에 있고 그들과 적게 혹은 거의 관계성이 없다. 그들은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과 연합하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들이 스스로 고립을 깨고 내게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한 고립 된 것처럼 느끼고 실제 고립 된다. 그렇지만 나는 내 자녀들의 아버지이길 원한다. 사람들과 가까이하길 원한다. 아주 가까이 그들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관계성을 갖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이다.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려고 해야 한다. 그가 바로 내게 가까이 오려는 의지로 우리 간에 있는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그에게 계속 이 사랑에 관해 전할 때 내가 단지 사랑이며 이 큰 사랑을 피조물에게 주어 구원하길 원하는 가장 완전한 존재로 소개할 때 그 안에 이런 의지가 잠에서 깨어나듯 깨어난다.

나는 사람들에게 단지 사랑이고 자기의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자신의 큰 사랑을 주려고 하는 가장 완전하신 존재로 소개해야 한다. 먼저 사람들이 이 내 사랑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나를 향한 사랑이 타오를 것이고 나와 하나가 되려고 갈망할 것이다. 그때서야 그는 내 자녀로 느끼고 나와 둘만의 대화를 갖고자 아버지를 갈망할 것이다. 그럴 때 더 이상

주춤거림이 없고 자녀가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하듯 나와 말할 것이며 내 사랑을 느끼며 내게 신뢰감을 가지고 나온다.

그리할 때 나는 그에게 임재하고 넓은 거리감은 제거되고 자녀는 내음성을 듣는다 왜냐면 자녀가 나를 추구할 때 스스로 사랑이 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자녀가 아버지와 연합이 되게 한다. 너희가 이웃에게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을 다시 자신의 자녀들과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면, 그들이 나에게 대한 큰 경계심을 버리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크게 신뢰하며 나에게 의뢰할 것이다. 그들이 내 도움을 체험하면, 계속해 나에게 더 가까이 오려고 한다. 왜냐면 내 사랑이 그들을 붙잡았고 부드럽게 계속하여 위를 향해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그런 후 언젠가 연합이 될 것이다. 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나로부터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나를 더 열심히 추구한다. 그래서 큰 간격은 최종적으로 사라진다. 그들은 이제 나를 단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여긴다. 그는 이제 아버지를 향한 그의 길을 가고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B.D. No. 3537

1945년 9월 5일

나는 모든 영원에 영원히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시작도 끝도 없다. 왜냐면 나는 그 자신 안에 힘과 사랑이 있는 영이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생성되었고, 의지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로써 모든 지혜로 역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내가 없으면, 아무 것도 없다. 내가 없으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온 우주를 채우는 힘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의지이고, 나의 권세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사랑이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보이는 창조물과 보이지 않는 창조물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내가 창조한 것은 영원히 나와 연관되어 머문다. 왜냐면 힘은 나눌 수 없고, 나 자신의 발산인 힘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물은 의지가 형체가 된 것이다. 이 의지는 힘과 함께 역사하고, 내 생각이 행동이 되게 한다. 그러나 나 자신이 창조물이고 동시에 창조주이다. 왜냐면 창조물은 나 자신의 본질 자체인 나의 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나의 창조물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있어야만 한다. 나는 전능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영이다. 나의 영은 끊임 없이 활동한다. 즉 사랑과 지혜로 역사한다. 사랑의 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왜냐면 사람의 힘은 상상할 수 없고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영이고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나는 영원하고 모든 곳에 거하고, 나에게 숨겨진 일은 없고, 내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왜냐면 나는 가장 온전한 존재이고 나로부터 단지 온전한 존재만이 나오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생성된 존재는 영적인 존재였다. 그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나의 형상대로 형성되었고, 나의 사랑의 힘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그는 나의 일부였고, 떨 수 없게 나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내가 형체를 부여한 나로부터 나온 발산이었고, 이제 나처럼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를 향해 끊임없이 흐르는 내 힘으로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었다. 내 영이 나에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를 충만하게 채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들 안에 거하고, 나는 절대로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에 의해 생성된 존재도 나의 일부이고, 내 사랑의 힘 때문에 절대로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나에 대해 증거하고, 어떻게 그들 안에 나의 힘이 가지고 있는지를 증거한다. 왜냐면 나의 힘이 없으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의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나의 역사는 항상 영원에 영원으로부터 나 자신인 나의 힘의 발산이다.

나를 깨닫는 사람은 나를 어디서나 보고, 내가 어디에나 있음을 알고, 나를 느낀다. 왜냐면 그가 숨을 쉴 때마다 내 힘을 받기 때문이다. 이 힘이 그에게 나의 임재를 알게 한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나를 깨달아야만 한다. 왜냐면 나에 대해 증거하지 않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 작품이 존재하고 변하는 일의 근거가 내 안에 있고, 모든 창조 작품이 창조주의 작품에 생명을 부여한 창조주를 증거한다. 왜냐면 어떤 존재도 스스로 생명을 부여하거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죽은 물질조차도 살아 있기 때문이고, 어떤 것도 걸형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다시 말해 최소한의 정도라 할지라도 자신 안에서 활동하고, 이 활동은 살아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장 온전한 존재로서 나는 존재했고, 나는 존재하고, 나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나는 나의 의지의 힘과 나의 사랑과 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창조하고 형성하는 일을 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를 창조했고, 그들을 영원에 영원까지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어떤 존재도 절대로 나의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나의 힘의 발산을 갈망하는 모든 존재를, 다시 말해 직접 힘을 받음으로 존재했고,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할 나와 의 연합을 이룬 존재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나의 힘의 발산으로 축복되게 해주기 위해 그들 모두를 나의 가까이로 이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비밀이다.

B.D. No. 8006

1961년 9월 29일

너희에게 내 속성은 큰 비밀이고 비밀로 남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 생각에 제한이 있고 영적인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이 충만한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비록 그들이 이미 깊은 영적인 지식에 도달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내 형상을 따라 한때 나로부터 창조 되었을 때처럼 자신을 원래의 성품으로 만들었을지라도 나는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게 남을 것이다.

나 자신을 계속하여 추구하는 일과 계속하여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일이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에 속한 일이다. 그러나 나에게 도달할 수 없다. 존재들은 나 자신으로부터 비추임을 받고 제한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 존재들에게 내 임재를 의식할 수 있게 한다. 만약에 그러나 나에게 도달할 수 있으면, 언젠가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없다. 왜냐면 내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항상 존재들은 나를 추구하고 항상 새로운 성취를 이루지만 그러나 영원히 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

다. 나는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비밀이고 영원한 비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는다. 왜냐면 내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내 사랑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의 축복도 중단되지 않는다. 왜냐면 온전함에는 어떤 제한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중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재는 항상 높은 곳으로 빛을 향해 성장해 나가고 그에게 계속하여 비추어 질 것이다. 그러나 이 빛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고 도달할 수 없게 남을 것이다. 왜냐면 나는 고갈되지 않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추구하고 이 원천으로부터 양식을 얻고 끝없는 축복을 찾는 빛과 축복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내 성품은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게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존재를 인격화할 수 없음을 그를 어떤 제한이 있는 것으로 상상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너희는 이제 빛의 근원인 이런 존재를 창조된 존재들이 볼 수 없었던 이유를 이해할 것이다.

왜냐면 그의 충만한 빛이 모든 것을 소멸시켜 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자신의 모든 것을 선물해줄 수 있다. 그러나 존재는 자립적인 존재로 남아야 한다. 존재는 빛의 불씨로써 자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존재들을 계속하여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했다. 지속적인 갈망과 지속적인 성취가 축복에 속하는 것이다. 존재가 빛의 높이로 성장했으면, 그는 항상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한다. 이런 사랑이 영원한 사랑을 향해 추구한다. 나는 이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존재를 말할 수 없이 축복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갈망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신을 항상 또 다시 나에게 드리려는 나를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인간으로써 너희의 생각에는 제한이 있다. 너희는 절대로 이런 지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부족한 가운데도 너희는 나와 연결을 시킬 수 있고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기도할 수 있다. 너희는 나와 단둘이 대화를 할 수 있다. 내 사랑의 흐름이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연약한 능력에 흐름이라 할지라도 이미 너희 안에 흘러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능력의 흐름도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너희 안의 나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항상 밝게 불타오르는 것처럼 너희들 스스로 능력의 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미 너희 안의 작은 간구도 내가 채우고 너희의 내 사랑의 비추임을 향한 갈망이 항상 강해지고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정도에 따라 응답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느낄 것이다. 너희는 내 임재를 의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이성으로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에게 내 성품은 비밀이고 비밀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너희에게 계시한다. 너희는 나를 그 자체가 사랑과 지혜와 권세인 존재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항상 더 사랑할 것이다.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항상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한번 나로부터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면, 너희는 이 축복을 절대로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로부터 자립적인 존재로 비추어 나간 불씨가 계속하여 내 사랑의 불바다를 향해 추구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나를 향한 추구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영원히 자신을 선물할 것이다. 그릇은 영원히 자신을 열고 영원히 내 사랑의 비추임을 자신 안에 받아들일 것이다. 항상 나를 향한 갈망과 지속적인 성취가 축복되게 해줄 것이고 이런 일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